

# 혁신교육, 전북의 미래를 열다

### 도교육청,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사전 포럼 개최... 혁신교육 위한 다각적인 정책 도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앞두고 혁신교육의 미래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도출을 위한 사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주최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사전포럼은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사전포럼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혁신학교의 현황 및 성과와 전망을 통해서 혁신교육으로의 질적 비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제도·인식·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다각

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주제포럼은 오는 8월 8일 한국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학교혁신에서 교육혁신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21~22일 이틀간 한옥호텔 왕의지빌에서 '혁신교육, 전북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사전포럼을 진행한다.

혁신학교 담당교사,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회원, 혁신학교 사제연구자문단, 참여력지원단, 혁신교육에 관심있는 도내 교직원 중 희망자·시민단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민·관 협치를 통한 전북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21일은 윤일호(진안초 교사)의 사회

로 ▲혁신학교정책의 성과와 과제 ▲혁신학교에 상상 더하기-교육과정, 자치와 인권 ▲혁신학교 정책 현황과 전망 ▲정책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한 전북혁신학교의 발전 과정과 현황 등 혁신학교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22일은 추창훈(소양중 교감)의 사회로 ▲혁신교육의 미래, 학교혁신에서 교육혁신으로 ▲혁신교육, 마을로 지역으로 ▲혁신교육과 지역교육거버넌스, 혁신교육특구 ▲혁신교육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혁신교육을 주제로 한 발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오는 7월 13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학교자치 영역

사전 포럼'은 ▲학교자치의 개념 정의와 쟁점 ▲학교 자치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필요성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 달레마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김상천교수(한국교육대학교 정책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이영희 교수(단국대), 김요섭 교육연구원(교육부), 홍삼근 연구위원(재)경기대학교 교육연구원, 원미선 대표(웅진교육시민포럼)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을 기반으로 한 학교혁신의 방향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혁신교육의 미래를 위한 법·제도·인식·교육과정 측면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문성 기자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가 21일과 22일 이틀 간 이재 선생이 활동한 고창에서 12번째 학술대회와 유적답사를 진행했다.

## 진정한 학자의 발자취 따라

### 이재연구소, 이재 선생 활동한 고창서 학문세계 조망

조선시대 호남지역의 대표적 실학자인 이재 황윤석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중심으로 호남의 실학과 전통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소장 한문종 교수)가 이재 선생이 활동한 고창에서 12번째 학술대회와 유적답사를 진행했다.

전북도와 고창군의 지원을 받아 21일과 22일 이틀 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첫날은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다양한 이재의 학문 세계를 조망하는 학술대회 열렸고 이튿날에는 이재 선생의 유적을 직접 답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북대 하우봉 교수는 이재 황윤석의 백과사전 서파 실학의 특색과 실학의 본산 지인 호남에서의 역사적 의의를 탐구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권오영 교수(한국화학공업연구원)는 이재 황윤석의 일생과 더불어 말년에 주회처럼 두 눈을 실

명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학문을 추구했던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살폈다.

최영성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재가 '성리학의 기본에 충실한 학자'로서 '성리대전'을 중심으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극복하여 재도약할 수 있다는 '자기발전론'을 규명했고, 이상봉 교수(부산대)는 이재 황윤석이 15차례 이상 한양의 과거 길에 나서고 장릉참봉을 시작으로 타지는 위상을 발표했고, 박순철 교수(전북대)의 논문에서는 백양산의 자연경관에 대한 이재 황윤석의 찬미와 백양에서의 독서 및 승려와의 화답시 내용을 소개했다. /장문성 기자

## 제작부터 판매까지, 나도 창업가!

### 도교육청, 학교기업 제품 롯데백화점 판매 행사 개최 군산기계공업고·남원용성고·한국치즈과학고 참여

전라북도 직업계고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롯데백화점 6층 행사장에서 제품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기업은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기업운영을 연계해 아이디어부터 완성 제품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판매하며,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 군산기계공업고 '우토리', 남원용성고 '나무소리', 한국치즈과학고 '꿀트는 치즈N스쿨'이 선정돼 운영 중이며 판매 행사는 3개교가 연합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기업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 능력을 배양하고 고객의 반응을 확인

해 완성도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장판매를 통해 마케팅 전략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내 유가공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치즈과학고의 학교기업 '꿀트는 치즈N스쿨'은 미래 치즈명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청정지역 임실군에서 생산된 신선한 원유로 플레인요거트와 치즈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2016년부터 운영된 남원용성고 학교기업 '나무소리'는 목기와 옷걸이 유명한 지역 특성을 살려 남원 기술명장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품도마와 옷걸이 등 생활화과 접목된 다양한 옷걸이공예와 목공예 제품을 제작 판매했다.

2012년 교내 자율 목공동아리에서



전라북도 직업계고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롯데백화점 6층 행사장에서 제품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출발한 군산기계공업고 학교기업 '우토리'는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나무를 소재로 기계공업이라는 학생들의 전공을 살려 만년필, 수성펜

등 세상에서 하나뿐인 수준 높은 우든펜을 수작업으로 직접 제작·판매했다. /장문성 기자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하세요”

### 도교육청, 8월 9일까지 접수... 학교현장 적용 가능한 예산사업 대상

전북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소문의 교육문화 실현을 위해 2020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는 오늘부터 8월 9일까지 접수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주민 등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은 학교교육과정 지원, 학교내 폭력예방, 학생복지, 학생 인권 신장 등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학교회계 집행 사업)이 된다.

다만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제안사업 접수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참여·제안→ 주민참여예산제→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방문 접

수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8월중 예비심사를 거쳐 9월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사를 합산해 최종 대상 사업 40여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2019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에는 학생 17건, 학부모 36건, 교직원 및 주민 68건 등 총 121건이 접수된 바 있다. /장문성 기자

##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시스템 장애대비 모의훈련 실시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전라북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장애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스쿨넷, 도교육청 운영서버 등 업무용시스템과 전북교육포털, 각급학교 및 기관 홈페이지, 전복수업센터, 도서관리시스템 등 학생·학부모 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교육연구정보원과 도교육청 시스템 운영자 24명이 참여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장애 중 일부를 선택, 모의장애를 발생시켜

장애복구 조치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처리 보고회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에 구축된 교육정보시스템 장애에 화재 및 정전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각종 전산장비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했다.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통해 시스템 담당자의 신속한 장애 복구 처리능력을 높이고, 또 모의훈련시 발생한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시스템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함으로써 실제 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장문성 기자